2018년 3월 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지

- 김민재(피램)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16학년도 모든 시험 국어 1등급

-잠실 학원 및 인강 강사 조교 경력

-대치, 분당 등 유명 강사 어시스턴트 -> 자료 및 시스템 공유

-2018년 하반기 출판 예정 국어영역 방법론 교재 단독 저자

-신촌 오르비학원 국어영역 멘토

-수만휘, 오르비, 포만한 등 입시 커뮤니티 멘토링 활동

2018년 3월 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지

- 김민재(피램)

-화작문은 알아서 하십쇼. 문법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 몰라서 틀린 겁니다. (독해나 함정 등이 핵심이 아니었음) 스스로 공부해보시길.

- 해설지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제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은 밑줄을 치는 부분입니다. 손풀이 스캔본을 참고해주세요.

[16~20]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는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 평가원 기출을 열심히 푼 학생들은 반가운 이름일 것입니다. (2012 수능) 일단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다루는 지문인 것 같아요. 전기에는 논리 철학 논고, 후기에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는데, 2012 수능의 지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 명료화하여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대요. 철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언어'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장이 곧 그 사람의 정의가 되고, 개념의 정의는 정말 중요하니 꼭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 하고 있죠? 그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가지고 도대체 철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이게 곧 화제겠네요.

> **『철학적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바탕으로 전기와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이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즉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에 있다.'라고 주장한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철학적 탐구는 후기의 책입니다. 후기에는 초기 때 주장했던 '그림 이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대요. 어떤 점을 비판하나 봤더니, 그림 이론에서는 낱말의 의미를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기 때는 지시하는 대상이 아닌 '낱말의 사용'에 의미가 있다고 봤대요. '달리'라는 단서를 보고 이 지문이 비교/대조 될 것이며,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아무튼 초기와 후기의 차이점은 일단 '낱말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냐'였네요. 초기에는 지시하는 대상으로, 후기에는 낱말의 사용으로 본 것이죠. '낱말의 사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 언어의 낱말이 유동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가 안되었더라도 '후기에는 초기와 다르게 낱말의 의미를 다양한 사용에서 찾았다.'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비트겐슈타인은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족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카드놀이, 숨바꼭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이 있을 뿐이다.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 모두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앞 문단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네요. 후기에 비트겐슈타인은 '낱말의 사용'을 곧 의미로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가족 유사성의 정의는 저거래요.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면 조금 더 쉽겠네요. '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이 다양하다! 이거죠 결국엔. 말이 조금 어렵더라도 앞 문단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포인트를 잡기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화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여기서의 화제는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언어에 집중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정도예요. 그래서 철학적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오지 않은 것이죠. 이걸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진 채로 독해했어야 합니다.

>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여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 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며, 다양한 언어 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 유사성을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했을 때, '망치'는 그냥 놓여 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 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그 건축 현장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비트겐슈타인은 또 언어를 놀이에 비유해서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대요. 1문단에서 말했듯이 진짜 언어 좋아하네요 이 친구.. 계속 읽어보니 언어 놀이의 정의는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래요. 아이고 어렵다. 아무튼 이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활동의 일부이고,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케이. 언어는 삶의 형식과 관련된다. 앞 문단에서 언어가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삶의 형식과 관련된다는 걸 이해하는게 쉽겠네요. 삶의 형식=맥락, 규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뒷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위에서 했던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맥락과 규칙에 따른 행위'가 언어 놀이를 구성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며,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다.

계속 읽어 봅시다. 맥락과 규칙, 다양성, 삶의 형식 등을 이야기하던 비트겐슈타인은 이번엔 '언어의 규칙'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이 언어의 규칙의 정의는 '언어의 규칙=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공적인 것' 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언어가 공적이고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하는데, 이 놈은 남도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언어 놀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도 아직 철학의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잊어버린거 아니죠?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화제만큼은 머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이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의의 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를 말하며, **'판단에서의 일치'**는 '낱말 적용 방식의 일치', 궁극적으로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서의 일치'를 말한다. 가령 '붉다'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붉다'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만 한다. 어떤 사물의 색에 대해서 '붉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붉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함을 나타낸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아 지겨워.. 또 똑같은 소리하네.'라고 느끼셨다면 매우 잘하신 겁니다. 또 똑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형식의 일치'라는 걸 제시하는데,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얘들 정의 체크해주고, 이 둘이 일치해야 '삶의 형식의 일치', '언어 사용의 일치'가 일어나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고 하네요. 말이 조금 달라졌을 뿐, 앞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 세계의 언어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의 세계**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

이런 전제들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대요. 비트겐슈타인은 사적 언어라는게 없다고 본 것이죠.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이 핵심인데, 언어의 규칙이 작동하는 곳은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철학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지문은 결국 '철학적 제재들은 보통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이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놀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 생각이 드셨어야 합니다. 이게 화제라니까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 번 풀어봅시다.

16. ②

① 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낱말의 의미'의 정의입니다.

② 문장이 수행하는 기능, 즉 맥락과 규칙에 따른 사용을 낱말의 의미로 본 건 전기가 아니라 후기죠. 각 시대별로 비트겐슈타인이 낱말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 차이점)

③ '언어 놀이'의 정의입니다.

④ '사적 언어'의 정의입니다.

⑤ '삶의 형식의 일치'의 정의입니다.

17. ①

① (가)와 (나)에서 벽돌, 석판의 의미가 다르죠? 그럼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 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화제를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왜 3점인지 모르겠어요.

② '삶의 형식의 일치'의 정의에 의해 알 수 있죠.

③ '언어 놀이'의 정의에 의해 알 수 있죠.

④ '언어 놀이'의 정의와 '언어의 규칙'의 정의에 의해 알 수 있죠.

⑤ '지시하는 것'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낱말의 정의입니다. 여기 머물렀으면 후기에 말한 '언어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18. ④

① [A]의 핵심은 언어 규칙 작동의 전제가 되는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일어나려면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가 함께 일어나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 정의, 판단에서의 일치 모두 일어났겠죠.

② 지문 내내 삶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화제를 역행하는 선지네요.

③ 정의의 일치도 일어나야한다니까요!

④ 1번 선지에서 말한게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정의, 판단에서의 일치 모두 일어났으니 삶의 형식의 일치도 일어난거겠죠.

⑤ 동일한 낱말을 발화했다는 건 정의에서의 일치가 일어났다는건데, 이 경우 필연적으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일어나면 비트겐슈타인이 [A]처럼 말할 리가 없겠죠. 비트겐슈타인이 계속 '둘이 함께 일치해야해!' 라고 울부짖고 있으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겠죠.

19. ②

- '가족 유사성', '언어 놀이', '삶의 형식의 일치'. 이 세 가지 개념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지문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 화제 자체를 찾아라고 하는 건데, 2번 선지의 '쓰임새', '다양한 의미'를 보자마자 골랐어야 합니다. 다른 선지를 고른건 지문을 똑바로 못 읽은거예요.

20. ①

- ㉡은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해소하고 싶어하던 '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그것을 해소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이를 안 상태로 선지를 보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을 따를 수 없는 놈이기에, 비트겐슈타인이 계속 강조하는 '언어 놀이'에 다다를 수 없는 개념이었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곧 화제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문을 읽어내는 독해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1~24] '사구체 여과'

혈액을 통해 운반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주로 **콩팥의 사구체**를 통해 일차적으로 여과된다. **사구체**는 모세 혈관이 뭉쳐진 덩어리로, 보먼주머니에 담겨 있다. **사구체**는 들세동맥에서 유입되는 혈액 중 혈구나 대부분의 단백질은 여과시키지 않고 날세동맥으로 흘려보내며, 물・요소・나트륨・포도당 등과 같이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를 통해 세뇨관으로 나가게 한다. 이 과정을 **'사구체 여과'**라고 한다.

이 지문은 1문단에 그림이라도 하나 줬으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웠을텐데, 너무한 지문이었어요ㅜ 개인적으로 제가 뽑는 이번 시험의 킬러 지문입니다.

아무튼 읽어보면, '콩팥의 사구체'라는게 있는데, 얘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여과하는 곳이래요. 단백질은 날세동맥이라는 놈한테 주고,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막을 통과시켜 보먼주머니라는 걸 통해 세뇨관이라는 애한테 나가게 한답니다. 이게 '사구체 여과'의 정의네요. 이걸 체크하고 읽었다면 충분해요. 이 지문은 '사구체 여과'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알려주는 지문인 것 같아요. 들세동맥, 날세동맥, 보먼주머니, 세뇨관 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사구체를 이루는 요소들인가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봅시다.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구체로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막 바깥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주로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①사구체로 혈액이 들어가는 <들세동맥의 직경보다 사구체로부터 혈액이 나오는 날세동맥의 직경이 작다.> ②이에 따라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보다 나가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③**사구체**의 모세 혈관에는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 혈관보다 높은 혈압이 발생하고, ④이 혈압으로 인해 사구체의 모세 혈관에서 사구체 여과가 이루어진다.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사구체 여과'라는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들세동맥과 날세동맥의 직경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들세동맥의 직경보다 날세동맥의 직경이 더 크대요. 이런 직경의 차이 때문에 유입되는 혈류가 나가는 혈류보다 많아지고, 덕분에 사구체의 모세 혈관은 다른 애들보다 혈압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압 때문에 사구체 여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구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들면 답도 없이 어려워져요. 그냥 팩트만 체크하며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과정은 문제로 내기 편하니까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가야합니다. 저렇게 번호로 끊어주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네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더 빠르게 돌아올 수 있구요. 그리고 이 사구체의 혈압은 생명 유지를 위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밑줄에 ㉠까지 있으니 중요해 보이네요. 기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구체막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기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구체막**은 모세 혈관 벽과 기저막,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진다. **모세 혈관 벽**은 편평한 내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피세포들에는 구멍이 있으며 내피세포들 사이에도 구멍이 있다. 이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 혈관은 다른 신체 기관의 모세 혈관에 비해 동일한 혈압으로도 100배 정도 높은 투과성을 보인다.> **기저막**은 내피세포와 보먼주머니 내층 사이의 비세포성 젤라틴 층으로, 콜라겐과 당단백질로 구성된다. **콜라겐**은 구조적 강도를 높이고, **당단백질**은 내피세포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알부민과 같이 작은 단백질들의 여과를 억제한다. <이는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당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보먼주머니 내층**은 문어처럼 생긴 발세포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발세포에서는 돌기가 나와 기저막을 감싸고 있다. <돌기 사이의 좁은 틈을 따라 여과액이 빠져나오면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게 된다.>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뒤에는 사구체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얘는 모세 혈관 벽, 기저막, 보먼주머니 내층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각 구조들의 역할을 체크하고, 뭐 투과성이 100배 높네, 같은 음전하를 띠네 이런 외우기 힘든 정보들은 저렇게 〈 〉 표시 해주며 그렇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구조들은 '사구체 여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요. 이 지문의 화제가 '사구체 여과가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한편 사구체막을 사이에 두고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혈액 속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체의 모세 혈관 내에는 존재하고 보먼주머니 내강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①따라서 보먼주머니 내강보다 사구체의 모세 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다. ②**그 결과** 보먼주머니 내강의 물이 사구체의 모세 혈관 쪽으로 이동하려는 **삼투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한다. ③그리고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한다. ④이 압력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사구체의 모세 혈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과를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과 억제하는 압력의 차이가 **'실제 여과압'**이 된다.

저처럼 이 지문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용어의 낯섬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단이예요. 천천히 가봅시다. 결국 화제는 '사구체 여과의 과정'이니까요. 윗 문단까지의 과정을 통해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만 있는게 아니라 여과를 방해하는 놈도 있는거였어요. 보아하니 ①~④까지의 과정을 토대로 '보먼주머니 수압'이라는게 발생해서 여과를 방해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여과압'의 정의 체크해주면 됩니다. 지문의 세세한 정보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사구체 여과가 발생하는 과정 -> 그걸 억제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해요.

> 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 상태에서는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구체의 혈압은 동맥의 혈압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 같은 변동은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 관리된다. 즉 **콩팥**은 심장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혈압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구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가 조절은 주로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사구체 여과를 억제하는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주머니 수압은 건강하면 크게 변하지 않는데, 사구체의 혈압은 크게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콩팥은 '자가 조절 기능'을 통해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해 사구체의 혈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아까 그리 안 중요해 보이던 ㉠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렸네요.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몰랐는데 말이죠. 이걸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문제 풀어봅시다.

21. ①

① '알부민'을 보자마자 3문단으로 갔어야 합니다. 알부민이 정확히 뭐하는 놈인지는 기억못해도, 사구체막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대로 읽었다면 '기저막'과 관련된 놈이라는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보니, 알부민 같은 작은 단백질들과 당단백질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단백질들의 여과 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상반된 전하'가 바로 틀렸네요. 이걸 기억해서 푸셨으면 베스트고, 기억 못하더라도 빠르게 왔다갔다하며 풀었으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② 보먼주머니 내층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지울 수 있겠죠.

③ 질환이 있지 않으면 둘 다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질환이 있으면 변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네요.

④ 기저막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⑤ 사구체 여과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22. ⑤

- 이 문제는 만약 잘 안풀렸다면 쿨하게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이거 틀려도 넉넉하게 1등급이잖아요. 물론 저는 하나라도 틀리면 쪽팔리니까 풀집중해서 풀었지만, 시험장에서는 실력 뿐 아니라 전략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마세요.

① 모세 혈관 벽의 정의, 사구체 여과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여과압의 정의는 '발생한 여과 - 억제된 여과'입니다. 2문단에서 이야기한 사구체 여과의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 혈관의 혈압이 엄청 높아서 사구체 여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이 감소하면 발생하는 여과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실제 여과압의 감소를 낳을 것입니다. 정의와 과정을 아름답게 물어본 문제예요.

③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는 여과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 '보먼주머니 수압'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보먼주머니 수압은 여과를 억제하는 놈입니다.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는 여과액이 줄어들면 보먼주머니 수압이 줄어들고, 억제된 여과가 줄어들테니 실제 여과압은 증가할 것입니다.

④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한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보먼주머니 수압입니다. 얘는 여과를 억제하는 놈이고, 모세 혈관의 혈압은 여과를 발생시키는 놈이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죠.

⑤ 농도 차이는 '여과 억제의 단계'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따라가 보니, 농도 차이 때문에 혈장 교질 삼투압이 일어나고, 얘가 여과를 억제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 혈장 교질 삼투압이 적게 일어나서 여과를 억제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실제 여과압의 증가를 야기하겠네요. 실제 여과압의 정의가 '발생한 여과 - 억제된 여과'니까요.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19] '인공 신경망 기술' 지문이 생각난 문제입니다. 한 번 같이 풀어보세요.

결국 핵심은, 과정이 나오면 반드시 선지로 구성하니 그들을 번호 등으로 끊어두고, 왔다갔다하며 과정이 시키는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23. ②

- ㉠의 이유 우리는 찾아놨죠? 들세동맥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혈장 교질 삼투압, 보먼 주머니 수압'과 '사구체의 혈압'이 비교/대조 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의 차이점에 주목했을 거고, 그 차이점이 '변화 가능성 및 유지'라는 걸 체크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어휘 문제는 넘어갑니다!

[25~27] 남영로 - 옥루몽

> 하루는 **양창곡**이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곡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읍을 하며 말했다.
> "문창성은 그동안 별고 없으셨소?"
> 양창곡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의 관음보살이외다. 옥황상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兵書)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 양창곡이 **놀라서**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丹書)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창곡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곡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 보았다. 과연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항아가 광한전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흩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번엔 소설이네요. 소설의 핵심 요소는 '인물관계, 시공간, 인물의 심리, 배경묘사 및 외양묘사'입니다. 이걸 체크하며 읽어봅시다.

양창곡이라는 인물이 벽성선이라는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없대요. 그래서 무료한 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생각을 했대요. 바로 밤이라는 시간에 벽성'산'에 봤기 때문에(꼼꼼하게 읽어야해요.) 진면목을 못 본거래요. 그래서 동자라는 인물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난데없이 보살이 천밍아웃(천상계 커밍아웃)을 합니다. 양창곡은 당황하고 놀라는 심리를 가지고 꿈에서 깨니 책이 있었대요. 그 책을 읽으며 내용을 익혔답니다. 이 때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니 체크해주면 좋겠죠? '양창곡은 본래 ~ 깨닫겠는가.'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자 벽성선이 돌아왔는데, 그게 겁나 이뻤대요. 외양 묘사가 나오고 있으니 체크해줘야겠네요! 외양 묘사와 배경 묘사는 인물의 심리와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겁나 이쁘니까 양창곡은 정신이 흩날리고 마음이 황홀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대충 이런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뒷 내용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인물관계, 시공간, 심리, 묘사 이 4가지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내용은 쉽게 들어와요.

25. ①

① 양창곡은 벽성'선'을 찾으러 갔다가 없길래 집으로 돌아와서 벽성'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구나! 라며 산으로 오르고 있어요. 벽성선과 벽성산을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선지에서 벽성산을 '올랐다'라고 한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야해요. '사람을 올랐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벽성선을 만나러 간게 아니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② 벽성선의 외양 묘사, 그리고 그것을 본 양창곡의 심리를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술자의 개입 부분을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건 뭐.. 지문을 읽었다면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것도 난새 부분을 읽었다면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26. ⑤

① 양창곡한테 '문창성은 그동안 별고 없으셨소?'라고 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병서를 익혀 널리 중생을 구하라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얘를 못 봤다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보살이랑 양창곡이 대화하는 부분이 어딘지는 알잖아요.

③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것이냐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벽성선이 이렇게 말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벽성선은 지금 지상계에 있습니다. 천상계를 떠나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네요. 인물들이 현재 있는 공간을 의식했다면 고르면 안되는 선지입니다.

27. ⑤

- ⓐ는 둥글어졌다 이지러졌다 하는, 이별을 암시하는 달이고, ⓑ는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는 인연을 지속하겠다는 걸 암시하는 달이므로 답은 5번입니다.

[28~33] '사진의 사실성'

> 우리는 초상화보다는 초상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느낀다. 회화에 비해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하여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사진 미학 이론에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기의 주요 장치**인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 의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기에 사실적이라면서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상을 변형시킨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얘가 이 지문의 화제겠죠. 변형된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논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진기의 주요 장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무서운 그림도 있고.. 생각만 해도 빡빡합니다. 가 봅시다.

>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피사체의 상을 필름 면에 맺게 한다. 이 장치에는 렌즈와 관련한 광학 원리가 적용된다.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인데, 렌즈 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므로 광축*에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모인다.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f)라고 한다. 렌즈의 초점 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므로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 거리를 갖는다.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인 **물체 거리**(o)가 달라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인 **상 거리**(i)가 달라진다.
> −> **렌즈면이 굽을수록 → 굴절 ↑**

일단 주요 장치 중 하나인 초점 조절 장치의 정의를 체크합시다. 그리고 사진기 렌즈의 정의도 체크하는데, 비례/증감 관계가 하나 나오네요. 바로 메모해야겠죠. 반드시 선지로 나올테니까요. 그리고 초점 거리, 물체 거리, 상 거리의 정의를 체크해주면서 읽으면 됩니다.

물체 거리(o)와 상 거리(i)가 렌즈의 초점 거리(f)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frac{1}{o}+\frac{1}{i}=\frac{1}{f}$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렌즈 공식**이라 한다.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i를 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f가 20 cm인 렌즈가 있다고 하자. <피사체인 연필의 o가 40 cm인 경우에 연필의 i는 40 cm가 된다. o가 10,000 cm인 나무의 i는 어떻게 될까? o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물체가 무한대의 거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frac{1}{o}$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i는 f와 거의 같다. 만약 o가 f보다 작으면 피사체의 빛이 퍼져서 모이지 않아 렌즈 뒤에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다.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은 i를 o로 나눈 값과 같다. 그러므로 이 값과 피사체의 크기를 알면 상의 크기도 알 수 있다.

'렌즈 공식'이라는게 있답니다. 갑자기 수학도 아니고 원.. 아무튼 얘를 활용하면 먼저 '상 거리'를 구할 수 있대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 〉 표시 해놓은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그림 보면서 오케오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대요. $\frac{\text{상의 크기}}{\text{피사체의 크기}}=\frac{\text{상 거리}}{\text{물체 거리}}$ 이기 때문이래요. 얘도 뭔가 문제에서 써먹을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일단 메모를 하든 체크를 하든 해둡시다. 이 내용을 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렌즈 공식을 이용하면 두 가지(상 거리 구하기, 상의 크기 구하기)를 할 수 있다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노출**은 필름에 입사되는 빛의 양이다.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옇게 번져 나오고,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된다.> 조리개 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으로,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조리개 조절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1.4, 2, 2.8, 4, 5.6, 8, 11 등의 수치들은 렌즈의 초점 거리(f)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눈 값인데, 이를 **조리개 값**이라 한다.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 지름은 약 1.4배 커져 조리개 면적이 약 2배 넓어진다. 따라서 빛의 양도 약 2배 증가한다.> 한편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셔터 속도는 1, 2, 4, … 등으로 표시된다. 이는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이 1/1초, 1/2초, 1/4초, … 등임을 뜻한다. <셔터 속도가 2배 빨라지면 노출 시간 역시 2배 짧아지므로 빛의 양이 2배 감소한다.> 따라서 사진가는 조리개와 셔터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 **노출↑ → 사진 허옇게 됨**
조리개 값↓ → 조리개 지름, 면적↑ → 빛의 양↑
셔터 속도↑ → 노출 시간↓ → 빛의 양↓

이 지문을 보면서 2018 수능 오버슈팅 지문을 떠올리셨다면 굳입니다. 처음에 화제를 던져두고 그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배경지식을 쌓게 해주는 과정이 '비례/증감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지문도 딱 그런 형태입니다. 오버슈팅 지문도 다시 풀어보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번엔 조리개와 셔터라는 주요 장치에 대해 설명하려나 봅니다. 둘 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노출'을 결정하는건데,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비례/증감 관계 메모해주고, 조리개와 조리개 값의 정의를 체크하며 거침없이 읽어 갑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과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를 메모해주면 조리개가 어떻게 노출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다음으론 셔터 속도입니다. 셔터 속도와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도 체크하고 메모하면 셔터가 어떻게 노출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저 내용을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지문의 흐름만 타면 됩니다.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논의 알아보려면 주요 장치 이해해야돼 -> 초점 조절 장치와 사진기 렌즈는 이런 원리야 -> 렌즈 공식으로는 상 거리와 상의 크기 알 수 있어 -> 조리개와 렌즈는 노출을 결정해.' 이렇게 말이죠. 이 정도는 하셔야 수능장에서 만날 또 다른 오버슈팅, 부호화 지문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에는 다른 기능도 있다.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미친다. **심도**란 상이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되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은데, 이를 심도가 깊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는 좁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심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셔터 속도**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빠른 셔터 속도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다. 노출 시간이 짧아 피사체의 잔상이 필름 위에 남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면 움직임을 암시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움직이는 피사체는 흘러가듯이 표현된다.

−> **조리개 지름↓ → 광축 가까운 빛 입사 →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 → 심도↑(깊어짐)**
셔터 속도↑ → 노출 시간↓ → 잔상↓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만 결정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조리개는 심도에, 셔터는 피사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또 얘들을 비례/증감 관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아주 전형적인 지문 형태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화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주요 장치들에 대해 대충 이해했으니, 이걸 바탕으로 사진의 사실성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이와 같은 사진기 장치들의 특성은 대상을 사진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게 한다.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바쟁**은 사진은 기계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성을 띤다고 본다. <조리개와 셔터 등의 요소에서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는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기계적 방식으로 대상을 기록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든**은 사진은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진이 사실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사진이 기계에 의존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은 그 대상의 가시적 특징을 추가하거나 누락할 수 있지만 사진은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달리 사진이 사실성을 띤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또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계 장치로 기록한 것이다. 발자국이 대상의 실재를 함축하듯 사진은 그 대상의 실재를 함축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발자국은 사진과 동일한가? 이 견해에 의하면 사진은 대상 자체의 자취가 아니라 대상에서 나오는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발자국과 구별된다. 또한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사진 형성 과정에 사진가가 적극 개입한 사진이건 우연히 찍힌 사진이건 빛 이미지의 자취라는 점에서는 모두 사실성을 띤다는 것이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처럼 사진은 대상을 정확하게 나타낼수도, 변형시킬수도 있는데,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대요. 먼저 '바쟁'이라는 사람은 사진의 기계성에 주목합니다. 사진은 기계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실성을 띤다는 것이죠. 그리고 월든은 사진은 우리가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묘사하고, 그런 의미에서만 사실성을 갖는대요. 보이는대로 기록하니까 그림과 다르게 사실적인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견해도 있는데, 얘는 빛 이미지를 중시하네요. 이런 각 사람들의 주장, 곧 그들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완벽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28. ③

- 해설 안해도 되겠죠? 화제와 구조에 신경써서 읽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29. ②

①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는 비례/증감 관계가 있었습니다.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 조리개 값은 커지니 맞는 선지네요.

② 초점 조절 장치의 정의를 봅시다.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건 맞는데, 초점 거리를 변경하는건 말이 안되죠? 초점 거리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입니다.

③ 렌즈 공식의 역할을 체크하며 읽었으면 바로 지울 수 있죠.

④ 렌즈 면이 굽을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비례/증감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⑤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과 심도 및 피사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니 당연한 선지죠. 조리개, 셔터의 역할이라는 지문 구조상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30. ①

① 천천히 갑시다. 일단 연필의 i는 40이라고 지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공의 i만 알면 되는데, 렌즈 공식에 대입해보면 공의 i가 6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는 20, o는 30이므로) 따라서 연필의 i는 공의 i보다 작습니다. 렌즈 공식의 정의만 잡고 지문에서 알려준대로 대입해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네요.

② 나무처럼 겁나 멀리 있으면 i가 f와 거의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게 아니라, 가서 찾아라는 겁니다. 렌즈 공식의 역할 몇 문단에 나오는지는 알잖아요. 화제,구조에 집중해서 읽으면.

③ '이건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게 상 거리를 물체 거리로 나눈 것과 같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겠네요. 연필의 $\frac{\text{상거리}}{\text{물체거리}}$는 $\frac{40}{40}$입니다. 이는 상의 크기와 피사체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④ 3번 선지와 똑같이 해보면, $\frac{60}{30}$이 나옵니다. 상의 크기보다 피사체의 크기가 더 크네요.

⑤ o가 f보다 작으면 렌즈 뒤에 상이 맺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1. ④

① 천천히 가봅시다. 피사체만 선명하게 하려 했는데 주변도 선명하게 보였으면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좁아져야 겠죠? 즉, 심도가 얕아져야 합니다. 심도가 얕아지려면 조리개 지름이 커져야하고, 조리개 지름이 커지려면 조리개 값을 낮춰야겠네요. 지문해설을 제대로 봤다면 메모된 비례/증감 관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메모된 그 비례/증감만 가지고 문제를 풀거예요.

② 허옇게 번졌다면 노출이 과한 상태겠죠? 즉, 빛의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빛의 양을 줄이면 될텐데, 그러기 위해선 조리개 값을 늘리거나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야겠죠. 2번 선지는 조리개 값을 늘리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빛의 양을 늘린다고 했으니 틀린 선지가 됩니다.

③ 2번 선지와 반대의 상황이네요. 빛의 양을 늘리려면 조리개 값을 늘리거나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셔터 속도고 줄이고, 빛의 양도 줄이고 있으니 총체적으로 틀린 선지네요.

④ 잔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잔상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줄어든다고 했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고, 밝기를 유지하려면 셔터 속도가 빨라져 줄어든 빛의 양을 다시 늘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리개 값을 낮추면 되겠네요.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 빛의 양은 증가하니까요.

⑤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어보였다는건 심도가 깊다는 뜻이네요. 심도를 얕게 해주려면 조리개의 지름을 크게 해야할텐데 (가)를 고정한다고 했으니 바로 틀렸네요.

어떤가요? 비례/증감 관계를 메모하지 않고 그냥 왔다갔다 했다면, 아마 멘탈이 하늘로 승천했을 겁니다. 메모하는데 드는 몇십 초가 여러분의 몇 분을 아껴줍니다. 비례/증감 관계는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또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2015수능 슈퍼문, 2016수능 항력/부력, 2018수능 오버슈팅 등의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슈팅 지문을 다시 한 번 풀어보면서 연습합시다.

32. ④

- 이 문제는 비교/대조를 위해 각 주장들의 정의를 제대로 체크했다면 틀릴 수가 없네요. 4번 선지의 '또 다른 관점'은 인간의 주관이 중요한게 아니라, 빛 이미지의 자취가 있냐없냐가 사실성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그들의 주장 그 자체예요. 틀렸다면 반성하고 개념의 정의, 그리고 그들의 비교/대조에 집중하려는 마인드를 가집시다.

어휘 문제는 넘어갑니다! 드디어 비문학이 끝났네요. 진짜 죽을거 같아요..

[34~38] 면앙정가, 강호구가, 석가산폭포기

사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전 해당 시험의 35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앞의 비문학에서 꽤 시간을 많이 뺏겨서 급한 나머지 35번의 ㄹ을 당연히 있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쪽팔리지만,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고백합니다.. 스캔본을 보시면 x표 쳐져 있을 거예요ㅜㅜ

해당 지문은 지문이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기에, 스캔본을 참고해서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시의 '상황과 반응'만 잡고, 그것을 통해 각 문제들의 선지들을 '평가'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ps. 만약 해설이 잘 이해가 안되거나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쓴 문학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34. ⑤

① 이런 선지는 내신처럼 3음보 4음보 깐깐하게 따지지말고, 대충 봤을 때 뭔가 규칙적이면 맞다고 하면 됩니다. 고전시가는 거의 다 맞아요. 예외도 있지만..

② (가)의 '온가짓 소ᄅᆞ', (다)의 '폭포 소리'를 통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비유적 표현, 주관적 인식. 문학 작품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④ (가)와 (나)는 속세-자연을, (다)는 본인-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도 보이지 않고, 심리의 변화는 너무나도 개소리죠? 심리, 즉 반응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굉장히 특이하고 눈에 띌 것입니다. 상황과 반응에 집중하며 읽었다면 바로 개소리인 걸 알 수 있어요.

35. ①

ㄱ. 둘 다 역군은, 성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ㄴ. 둘 다 자연 속에 있는 상황이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ㄷ. (가)에서는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를 통해 허용할 수 있는데, (술로 대표되는 흥취를 벗이라는 타인과 나누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으니) (나)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ㄹ. 둘 다 궁핍한 생활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안빈낙도를 떠올리며 당연히 궁핍한 생활상, 그것의 수용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 지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ㅜ

36. ④

- 다른 건 쉽게 허용할 수 있고, 4번 선지만 봅시다. ㉣에서는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37. ⑤

- 얘도 되게 쉬워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도, 그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 5번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쉽게 허용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세요.

38. ②

- [A]에서 우물 뚫고 나무 심고 해서 되게 멋있어졌고, [B[에서 이걸 즐기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39~42] 김소진 - 쥐잡기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이 지문이 어렵다고 난리던데, 얘도 소설의 기본적인 포인트만 잡으면서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용이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문학은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물이 하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저도 민홍이가 왜 쥐랑 저러는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답은 쉽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봅시다.

지문 해설은 스캔본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어디에 체크하며 읽고 있는지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39. ③

-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는 3인칭 시점이고, 아버지, 민홍이의 심리 상태를 끊임 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40. ②

① 앙칼진 호각 소리.. 무섭지 않나요?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정해라는 폭력성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 인물관계 제대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부모처자는 북한에 있다고 했어요. 부모처자를 버리면서 남한으로 온 겁니다. 부모처자를 위해서 남한을 선택했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③ '울컥'이라는 인물의 심리가 왜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이해되면서 그의 슬픔이 공감되었기 때문이겠죠. 인물관계, 시공간, 인물의 심리를 체크하면 그들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소설이 훨씬 쉬워집니다.

④ 3번 선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⑤ 고생대=세월이라고 할 수 있고, 화석=가슴 답답함 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41. ④

① 그놈을 보면서 철원네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그놈이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한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모파기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용모파기는 용모파기입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③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맞고, 실제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인물의 심리를 체크할거면 제대로 체크해야합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건 민홍이 아니라 '어둠 속'입니다. 인물의 심리를 체크해야겠다! 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⑤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말하며 신음을 흘리고 뒤쫓아가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나요? 나만 쉽나 쩝..

42. ③

① 뒤죽박죽 사람들이 섞일 때 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사람들이 오라고해서 가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③ ???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들키면 죽나요? 완전 헛소리죠.

④ 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남측으로 가고 있고, 아버지도 남측으로 가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걷고 있고 아버지가 중압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문학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43~45]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살구꽃

이번 현대시의 경우에는 확실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이면 44번, 45번 문제의 5개 선지가 전부 맞는 선지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문학이 쉽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얘도 스캔본으로 지문해설을 대신해주세요!

43. ⑤

- (가)에는 청사초롱, (나)에는 흰빛에 분홍 얼룩이라는 단어들이 있네요.

44. ④

① (다)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이 선지처럼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에 있으니 허용해주었습니다.

② (다)에서 (가)의 화자가 영원성을 지향한다고 했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니 영원성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하늘을 여러 번 쳐다보는 것, 내려온 것 모두 살구꽃에 대한 이야기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 좋은데, 이 시에서 회한이라는 반응을 찾을 수 있나요? 상황과 반응만 찾으려면 눈에 불을 켠 저도 명시적으로 드러난 반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점으로 봐도 후회하는 모습은 나온 적이 없으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꽤 쉽죠?

⑤ 해일이 마당과 바다의 경계 허물고 있고, 살구꽃이 마당과 하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 맞으니 세계의 만남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마당, 바다, 하늘 이 세 개면 대충 세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45. ⑤

① (다)에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지문에서 그렇다면 그런거예요.

② 실밥, 자국들은 모두 바느질을 한 결과들이자 상처를 봉합한 것은 맞고, 살구꽃의 의미, 주제 의식..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허용할 수 있겠죠.

③ 2번 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연, 제일 낮은 등을 통해 상처와 위안을 허용할 수 있고, 이게 '살구꽃'의 의미라고 (다)에서 계속 말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⑤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보세요. '흰 돛배처럼 떠 있'는, 그리고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이 나타내는건 '살구꽃'입니다. 그리고 (다)에서 살구꽃은 '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번 선지는 '땅의 이미지'라고 했으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건 아니지만, (다)가 그렇다잖아요. 문학은 이렇게 확실한 개소리를 줄 수밖에 없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 총평: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는 역대 최강이었습니다. (거의 17수능급이었네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원칙들 외의 것으로 풀리는 문제는 역시나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원칙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체화해 나갑시다.

비문학의 경우 3지문 전부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고, 교육청 시험 이상의 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문학도 낯선 지문으로 학생들을 공격했지만, 결국 문학에서 중요한 건 지문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문이 나와도 일관되게 풀어내는 태도라는 걸 더욱 잘 알려준 문제들이었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능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